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사랑의 울타리’ 모임



지난 주말, 본당에서 ‘사랑의 울타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약 40여 명의 예비자들과 대부모, 본당 신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신앙 안에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부모의 역할’을 되새기며, 새신자들을 더 잘 인도하기 위한 ‘대부모·대자녀 10계명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라는 이름처럼, 신앙의 길 위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예비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가자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자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성서모임 소식

2025 가을학기 그룹 편성

1 창세기 영어권 그룹

봉사자
이종원 바오로

그룹원
Michael Kim
Paul Hwang
Jinseo Kim

2 창세기 영어권 그룹

봉사자
김현준 요한

그룹원
Jihun Lee
Daniel Kim
Kevin Seo

3 마르코 영어권 그룹

봉사자
김가운 세라피나

그룹원
Peter Rhee
Paul Kim
Adam Kim
Ji Yun Choi

4 마르코 한국어권 그룹

봉사자
한송진 아녜스

그룹원
윤아원 플로라
이준한 패트릭
전 모니카 모니카

5 마르코 한국어권 그룹

봉사자
강동철 로베르토

그룹원
김동철 미카엘
김윤 안나
김성민 이레네

지난 11월 2일 5시 청년성서 모임에서 청년미사를 가을학기 개강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창세기 영어권 두 그룹과 마르코 영어그룹 하나, 그리고 마르코 한국어권 두 그룹으로 총 다섯 그룹이 생성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이 타지에서 대학생살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돕고자 배신부님의 배려 하에 창세기 영어권 두 그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16명의 그룹원들과 5명의 봉사자로 시작되는 이번 가을학기동안 청년들이 하느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각자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성서모임 주관으로 로고스 청년들이 이어서 성경필사를 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성경우정필사’를 창세기를 3번 가까이 완료하였으며 새로이 마르코로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생활화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평신도로서의 삶과 그 자세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기념하며 평신도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려 합니다.

평신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살이'(함께 살아가는 삶)의 마음을 지니고 실천해야 함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의 정신과 여정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향으로 살아갈 것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일치를 본받아 교회 공동체가 '친교'를 이루고,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로 서로를 섬기며 '참여'하는 가운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명(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른다고 선언하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려는 세상의 흐름 안에서 '친교와 참여와 선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열정 때문에 순교조차 마다치 않은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2마카 7,9)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박해와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가난하지만 기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인들로부터 '천주교인은 남다르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신우신'입니다. '신신우신'은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을 축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님 신자님 우리 신자님.' 목자는 자신이 섬기는 양들을 '신자님 신자님 우리 신자님'으로,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으로 부르며 친교를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라는 표현은 관계가 깊고, 소중히 여길 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우리'라는 마음을 지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의 삶에 함께하도록 이웃을 초대하고,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루카 20,38)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온갖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금주의 교리 상식]

평신도 주일이란?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직자가 아닌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러한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결성과 더불어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사명을 거듭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 오다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시면서 2017년부터 한 주 앞당겨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평신도 주일을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며 교회와 특히 사회 안에서 평신도사도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도록 평신도들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각 본당에서는 평신도가 미사 강론 때나 다른 적절한 시간에 평신도사도직을 주제로 담화를 하도록 배려합니다. 또 이날 실시하는 특별헌금은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1. 2차 헌금 안내

- 오늘은 군중교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11월 16일) 미사중에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사시다 은퇴하신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중 32주간 모임 안내

- 11월 9일 (일): 86차 세례 성사 (교중미사중)
새 영세자 축하식 (오전 11시 30분)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복사단 회의 (오전 11시 30분)

3. 연중 33주간 모임 안내

- 11월 14일 (금): 봉성체 (오전 9시부터)
- 11월 15일 (토): 고향 동산 묘지 축복식 (오전 10시)
- 11월 16일 (일): 하상회 월례회의 (오전 11시30분)
안나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꾸리아 월례회의 (오전 11시 40분)
하상문화원 이사회(오후 12시)
동중부 지구 올드레아 미사 (오후 4시)

4. 연중 34주간 모임 안내

- 11월 23일 (일): 어버이 성서 모임 종강미사 (오후 5시)

5. 86차 예비신자 세례식 안내

- 세례식 : 11월 9일 (일) 오전 10시 미사중 (18명)
- 축하식 : 11월 9일 (일) 오전 11시 30분 (A-1,2)
-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앙 생활을 잘 하시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6. PTO 부모님들을 위한 수녀님 강의

- 일시 : 11월 9일 (일) 오후 3시-4시 (장소: 친교실 A1,2)
- 문의 : 박예인 헬레나 703-755-5005
-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 해리스버그 성당 돕기 사과 판매

- 해리스버그 성당 돕기 사과 판매합니다. 11월 10일 (월) 에 해리스버그 성당에 가서 신선한 사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사전 주문을 받습니다. 사과 구입 신청은 성모 회장님께 해 주세요.
- 신청 : 성모회장 571-218-6962
- 신청 마감 : 11월 9일(일) 2시 미사 후까지

8. 고향 동산 묘지 축복식

- 일시 : 11월 15일 (토) 오전 10시
- 고향 동산의 묘지 축복식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11월 14일 (금)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 동중부 성령봉사회 일일 피정

- 일시 : 11월 15일 (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 장소 : St. Andrew Kim (메릴랜드 온리 성당)
- 참가비 : \$20 (점심, 간식 포함)
- 강사 : 이상훈 안토니오 신부
(동중부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
- 신청 및 문의 : 이혜원 요세피나 301-356-1585

10. 과달루페 성지순례 안내

- 과달루페 성지 순례가 11월 18일 (화)부터 22일(토)까지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의 성지 순례 일정으로 18일 (화) 저녁 미사는 없고 18일(화) 새벽 6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지순례 기간 다른 모든 미사는 변동 없이 제 시간에 봉헌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성당 공사, 용역 소통방 초대 안내

- 성당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컨트렉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톡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11월 15일(토)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연락처는 해당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련 공지 및 소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등록 : PinKorean.com/con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12. 생활 정보 공유자 초대 안내

- 성당 교우들간의 생활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11월 15일(토)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연락처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생활 정보 및 교우간 소통을 위한 안내에만 사용됩니다.

- 등록 : PinKorean.com/info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13. 동중부 지구 올드레아 미사

- 일시 : 11월 16일 (일) 오후 4시
- 꾸르실리스타로 어떻게 한해를 살아왔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꾸르실리스타로 잘 살아 주님께서 우리만을 믿고 세상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참 자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지구 올드레아에 모든 꾸르실리스타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간사 박기정 라파엘 703-862-0039
- 이날 오후 3시부터 친교실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저녁 5시 미사는 동중부 올드레아 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14. ME 셰어링 모임

- 일시 : 11월 23일 (토) 저녁 6시, 친교실 (A-1)
- 문의 : 주에드워드 703-626-2224

15. 33일 봉헌자 중간 모임

- 일시 : 11월 22일(토)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 성전
-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 중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미사 같이 봉헌하고 미사후에 간단하게 본당 신부의 당부 말씀 듣는 정도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봉헌식 준비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33일 봉헌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미사 봉헌하고 잠깐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 전신자 연도대회 안내

- 일시 : 11월 23일 (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 전신자 연도 대회를 공지해 드렸습니다. 연도 대회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함께 바치는 연도를 일관성 있게 서로 연습을 하며 같이 호흡 맞추어 연도 바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참여 신청하신 분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하지만 참여 신청 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하여 연도 바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본 전시합니다.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하신 분들께서는 서한 필사집을 11월 23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서한 필서 전시 날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 의류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 알링턴 교구 봉사 주간을 맞아 우리 본당에서는 “의류 나눔”을 통해 봉사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우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의류 수집 기간 : 11월 10일(월)-11월 30일(일)
- 수집의류 : 남/녀/아동용 각종 의류(세탁을 꼭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신발 종류는 구두 종류만 받습니다.
- 침구류, 속옷, 장신구 등은 받지 않습니다.(단 속옷/양말은 새것은 받습니다.)
- 낡거나 변색된 옷 등 나눔에 적합하지 않는 의류는 받지 않습니다.
- 수집방법 : 친교실 내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9. 11월 봉성체 안내

- 일시 : 11월 7일(금), 11월 14일(금)
- 11월 봉성체는 이를 있습니다. 봉성체 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0. 함께 기도합니다.

- 11월달부터 모든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 모든 미사 30분 전에 사제 서품 받으실 이동한 다니엘 부제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21. 2026년 매일 미사 책 / 제대초 봉헌

- 2026년 개인이 사용할 매일 미사 책 신청을 성물부에서 받습니다.
- 1년 동안 성당에서 사용하게 될 제대초, 제병, 제주 봉헌을 받습니다. 주님 제단을 밝힐 제대초와 제병, 제주를 봉헌하실 분들은 성물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초와 제병, 제주 봉헌해 주신 후원금은 제대초, 제병, 제주 구입과 동시에 본당에 필요한 제구, 제의 등의 구입 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1월 02일 (연중 제 31주일)

봉헌금 -----	\$8,927.00
교무금 -----	\$12,520.00
교무금 (신용카드) -----	\$3,470.00
온라인 봉헌 -----	\$7,230.00
모든성인 대축일 헌금 ----	\$2,283.00
감사 헌금 -----	\$950.00
합계 -----	\$35,380.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1월 14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cpbc드라마: 땀의 순교자 탁덕 최양업 신부 2부
4. 영상교리: '죽음'

교중미사 예물봉헌

11/9 이번주 라우든 1반

11/16 다음주 라우든 2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